

코로나 19 대응 재정 집행 점검

청도군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9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군은 매일 아침 코로나19 방역대책 확대간부회의와, 농번기를 맞아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전공무원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면서 불가피하게 저녁시간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청도군수 주재로 부군수, 산업경제국장, 주요 사업부서장 및 담당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부터 집행이 부진한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대안책을 강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청도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선급금 지급, 판급자재 선고지제도, 긴급입찰 등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 활용과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투자부진 집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상반기까지 신속집행 실적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승탁 기자 sking12@meconomynews.co.kr

‘산업기술단지’ 지원 조례안 통과… “포항TP 전환점”

이철구 도의원 “효과적인 동해안 정책”
2018년부터 계속된 포항TP 적자 탈피
포항, 동해안 발전정책 핵심도시로 도약

포항테크노파크(이하 포항TP)가 이철구 경북도의원(미래통합당, 포항)이 발의해 20일 경북도의회 제 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안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포항시 또한 경북 동해안의 핵심도시로서 포항TP를 활용한 현장형 정책실행을 통해 철강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설립됐던 포항TP는 그동안 포항시 출연기관으로 경북도의 ‘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1항 및 3항에 따라 경북도의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등의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실제 포항TP는 포항시출연기관이라는 한계성으로 경북도의 ‘공기관 위탁대행사업’ 등에 공모 또는 입찰의 형태로 참가해 경북 동해안의 대표적인 산업기술단지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 결과 포항TP는 강도높은 자구노력

에 따른 사업수익의 증가에도 2018년 24억여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간 16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포항TP는 이철구 도의원의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적자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고 이를 통해 경북 동해안 TP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철구 도의원의 ‘경상북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현실 반영이 부족했던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단점을 개선해 포항TP를 경북도의 TP로 승격시켰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제 3조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소재 TP로 명확히 했고 제6조에서 사업비 지원과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을 명시해 사업비 지원과 도(道)의 사무 및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포항TP는 경북도의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경북도의 ‘공기관 위탁



이철구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대행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동해안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제안, 실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이는 포항TP가 경북 동해안권의 핵심인 포항시를 중심으로 경주·영덕·울진·울릉 등 5개 시군과 관련된 지역균형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한 정책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항시 또한 포항시출연기관인 포항

TP를 활용해 경북도의 동해안 발전정책을 주도하는 핵심도시로서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며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과 육성에 가속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경북TP와 포항TP를 경북 2대 산업기술단지로 명확히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에 적합한 기술기업의 지원과 신산업육성 정책을 더욱 뚜렷이 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 포항시에 ‘동부청사’를 설치하며 경북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정책을 입안,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제정으로 포항TP의 가세할 수 있어 정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상공계는 “이번 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법’에 따라 도내 산업기술단지의 지원과 관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활용도에 따라 경북 동해안권 100년 먹거리 창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의 연료전지인증센터, 첨단바이오융합센터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활발한 실행이 포항TP를 통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철구 도의원은 “제정된 조례를 통해 도내 2개 TP가 같이 지역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을 제대로 살핀 이철구 도의원의 현실성 있는 조례 안 발의가 포항시를 중심으로 경북 동해안권의 신성장산업육성에 섯배될 전망이다.

강신윤 기자 max0705@meconomynews.co.kr

김천시, ‘포스트 코로나’ 투자유치 나서

“입주자 중심 양질의 인프라 만들겠다”
200만평 대규모 산업단지 벨트 구축
“김천산단, 철도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사태 대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비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김천시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35만평) 부지를 전국 최저가로 분양하고 있으며, 물류교통의 허브, KTX 고속교통망이라는 지리적 장점을 앞세워 조기분양에 나서고 있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철도산업·자동차 튜닝·드론·전기차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서 미래 김천발전을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윤전자금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공장가동이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천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응명동 일원에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부지를 44만 원/3.3㎡의 낮은 분양가와 사통팔달 국토의 교통중심 도시라는 이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조기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김천시에서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단가를 낮추고 산업단지 조성원가 절감 및 시 예산 투입 등을 통해 분양가를 대폭 인하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김

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35만평) 조성은 완료되면 지난 2011년 준공된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24만평)와 2016년 준공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43만평), 90년대 조성한 김천1,2차 산업단지(62만평), 대광·지례·아포농공단지(28만평)를 합쳐 약 200만평의 대규모 산업단지 벨트를 구축하게 된다.

일반산업단지 3단계 사업은 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 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어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김천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모면 남산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어모변전소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 입주업체에 고품질의 안정적인 고압전력(154kV)을 공급해 산업단지 내에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체들은 기업 활동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재정 부담 경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김천시에서 ㈜KCC와 같은 대기업을



김충섭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고품질의 안정적인 고압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지하고 변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입주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가 개설되면 김천은 서울까지 1시간 30분, 거제까지는 1시간 10분에 도달이 가능해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김천~문경 간 전철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향후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경우 경부선과 중부 내륙선이 교차하는 십자축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강승탁 기자

‘어게인 성주, 희망경제 팡팡’ 성주군 6대 과제 20개 시책

성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Again 성주! 희망경제 팡팡! 프로젝트’를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군이 지난 3월 발표한 3대 분야 89개 사업의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올인 대책에 대한 후속 성격이다.

군은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6대 과제 20개 시책’으로 실물경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지난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후 사회적·경제적 활동 보장을 위한 기본과제로 ▲군민안심 생활방역 ▲사각지대 해소·생계보장 ▲착한소비-ing 성주사랑먹자쓰놀 ▲이미지 Up 관광 Flex ▲성주 맞춤형 뉴경제 ▲파트너링 사업의 4가지 중점과



이병환 성주군수가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성주군

제에 대해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활속 거리두기 속에서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미지 Up, 관광 Flex’는 일제 청소·방역의 날 운영, 환경개선 및 도로경관정비로 깨끗한 성주를 만들고, 성주군 명예 유튜브 모집과 New 미디어를 통한 군 홍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강승탁 기자

대구경북 힘내라!

산나물 보고장 "경북 영양군"의 코로나19 피해 농가를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사태로 2020 영양 산나물 축제가 취소되고
축제기간 소진될 산나물이 남아 농가의 큰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가도 돕고 몸에 좋은 산나물도 드시고 코로나19도 이겨내요!

2020.4.30~5.30

영양군의 산나물은 4월 30일부터
사이소 및 네이버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